

전남교육 발전 이끈 학부모,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

학부모 교육자치·참여 활성화·학교현장 현안 해결 공로 인정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12일 교육감실에서 2025년 학부모 교육참여 활성화 유공으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박은실, 박수진, 송연재, 한유진 학부모의 표창장 전수식을 가졌다.

이들 학부모는 전남학부모회연합회 및 지역학부모회연합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2025년 한 해 동안 전남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또한 김대중 교육감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학부모의 목소리를 전남교육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한 공로로 이번 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

박은실 전남학부모회연합회장은 순천학부모회연합회장을 역임하며 전남교육의 발전과 학부모 교육자치를 위해 헌신했다.

박수진 나주학부모회연합회 부회장은 2024년 전남학부모회연합회 임원을

지냈으며, 나주지역 학부모들의 교육참여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 온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

송연재 목포학부모회연합회 부회장은 목포인성학교 학부모회장, 2024-2025년 전남학부모회연합회 부회장을 맡아 특수학교 학부모를 대표하여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학부모회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한유진 여수학부모회연합회장은 학습 환경 개선 봉사활동, 학부모 역량강화 연수, 학부모 독서 동아리 활동 등 여수 지역 학부모회 행사를 주도하며 학부모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수상했다.

박은실 회장은 "전남의 다양한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려면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전



김대중 전남교육감(맨가운데)과 교육청 관계자,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학부모들이 전수식을 마친 뒤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남교육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대중 교육감은 "오랫동안 전남교육 발전과 긍정적인 학부모 교육참여 문화 조성을 위해 애써주신 네 분의 학부모

대표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남교육 대전환과 발전을 위해 꾸준한 관심과 애정,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곡성군, 찾아가는 경로당 '한파대비 건강교실' 운영

전남 곡성군은 동절기 농한기를 맞아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한파대비 주민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일부터 오는 2월 13일까지 곡성읍 동산리 외 경로당 32개소가 대상이다. 방문상담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 10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경로당을 직접 찾아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나서고 있다.

건강교실에서는 혈압·혈당 측정을 비롯해 미세먼지, 당화혈색소, 콜레스테롤 검사 등 기초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측정 결과에 따른 개별 상담을 병행해 어르신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고혈압 등 심뇌혈관질환이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겨울철 추위로 인한 혈압 상승과 한랭질환 발생 위험을 안내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을 반복 교육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과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한파 대응 물품을 함께 배부하는 등 가정 내 건강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쓰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겨울철은 어르신과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한 시기"라며, "경로당 순회 교육과 더불어 안부 전화, 문자 발송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방문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은 이번 순회 교육과 연계해 치매·구강 검진, 금연·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등 다양한 통합 보건 서비스를 현장에서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한 번의 방문으로 종합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곡성/이정수 기자

구례군청년4-H연합회 이취임식 개최

구례군은 구례군청년4-H연합회(회장 강미선)가 지난 9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임원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허승원 전라남도 4-H연합회장, 시군 임원진, 청년4-H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임하는 이기호 회장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청년4-H의 발전을 위해 응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새롭게 취임한 강미선 회장은 "청년 4-H의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와의 상생목표를 활발한 활동을 펼치겠다"며 "회원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구례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청년4-H는 지역농업의 핵심 주체이며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4-H회는 지·덕·노·체의



4-H이념을 바탕으로 행사·교육 및 봉사 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구례/한정호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임신·출산 관련 제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난임 시술
(보조생식술)
급여제도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진도군, 전라남도 독서왕 선발대회에서 일반부 '최우수상' 수상

일반부 최우수상, 중등부 장려상, 초등 저학년부 장려상

후감 작품들이 '제33회 전라남도 독서왕 선발대회'에서 일반부 최우수상을 포함해 총 3개 부문에서 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진도/오재명 기자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영암 미암면서 의료봉사 활동

50여 의료진 지난해 이어 치과 의료 서비스... 매년 이어갈 것 약속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고정태)의 전공의와 학생 등 의료진 50여 명이, 9일 영암군 미암면역활성화센터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지난해에 의료봉사에 이어 이날 활동에서 전남대 의료진들은, 가지고 온 치료 장비 등으로 정기 치과 검진이 어려운 미암면민들에게 구강 검진, 발치, 스케일링, 충치 치료, 불소 도포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계화 미암면발전협의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렇게 찾아와 봉사활동을 해줘서 고맙다. 많은 분들이 집 가까이에서 편하게 치과 치료를 받았다"고 인사했다.

고정태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장은 매년 꾸준히 미암면역활성화센터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나주시 빛나래태권도장, 빛가람동에 '라면 트리' 기탁

빛나래태권도장 관원 250여 명... 따뜻한 마음 담아 라면 20박스 전달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동장 김귀남)은 지난 8일 빛나래태권도장(관장 최민홍)에서 '사랑의 라면 트리' 행사로 모은 라면 20박스(70만 원 상당)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했다고 밝혔다.

빛나래태권도장은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를 맞아 태권도장 관원들이 태권도

수련을 통해 배운 예의와 존중,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각 가정에서 직접 가져온 라면을 모아 '라면 트리'를 제작했다. 최민홍 관장은 "태권도는 신체 단련을 넘어 인성과 나눔의 가치를 배우는 참교육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한 신체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도 함께



키워줄 수 있도록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